

考試別：外交人員特考

等別：三等考試

類科組：外交領事人員韓文組

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考試時間：2小時

座號：_____

※注意：禁止使用電子計算器。

甲、申論題部分：（75分）

(一)不必抄題，作答時請將試題題號及答案依照順序寫在申論試卷上，於本試題上作答者，不予計分。

(二)請以黑色鋼筆或原子筆在申論試卷上作答。

一、다음 한글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십시오. (15分)

한·아세안 관계는 한·미 동맹과 같이 안보 차원에서 국력의 크기가 다른 두 나라가 맺은 군사동맹 관계와도 동기와 정서를 달리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갖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아 교류·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평등한 관계이다. 또 동남아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한 해 500 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다양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거주하며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二、다음 한글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십시오. (15分)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면서도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이 여자의 진의는 뭘까? 잘못된 것도 없이 사람을 남루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안사돈의 수법에 걸려넘어진 것처럼 그녀는 무참해지고 말았다. 혼란스러워 허둥대는 손길로 무릎 위의 봉투를 사돈 쪽으로 거칠게 밀어놓았다. 그러나 미처 어찌 볼 틈도 없이 그 하얀 봉투는 이번에는 그녀 핸드백의 사이드 포켓 속에 꽂혔다. 민첩하고도 우아한 손놀림이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스스로도 분간 못할 감정이 모닥불처럼 그녀의 표정을 달구었다. 하필 그때 졸업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다. 안 넘어지려고 버티기면서, 정신없이 사람들한테 밀리며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열기가 지글지글한 엿물처럼 영겨붙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겹다는 소리를 몇번이나 연발했다.

三、다음 중국어 문장을 한글로 옮기십시오. (15分)

妻一外出，我立刻進到外側的房間，打開房間東側的氣窗。一打開，陽光便直射在妻的化妝台上，五彩繽紛的瓶子燦爛閃耀，欣賞這閃爍的光芒是我無上的娛樂。我拿出小小的「放大鏡」，燃燒妻專用的草紙玩火。將平行光線屈折匯聚於一個焦點上，這個焦點不久開始發熱，點燃草紙，冒出細長的煙冉冉上升，終於燒出洞來。這不過是瞬間的事，卻教人心急如焚。對我來說，這樣的滋味好玩得要命。

(請接第二頁)

考試別：外交人員特考

等別：三等考試

類科組：外交領事人員韓文組

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四、다음 중국어 문장을 한글로 옮기십시오. (15分)

最近，國外發達國家推出的「創意城市」概念頗受關注。這一概念與先前一些五花八門的概念有所不同。以往概念給人的感覺是偏重於口號，近來則表現為具體的政策形態。它講求以多種理念和路徑來實現預期效果，在強調基礎設施的同時，也注重專案內容及運行體系的重要性。特別是，它不是大興土木新建設施，而是對那些閒置設施或具有歷史價值的建築物進行改造，使其變成新的文化空間。這已成為增加城市活力的主要手段，各地在紛紛效仿。

五、알림문 작성 (15分)

교통부 관광국에서 지난 여름 모라크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침수, 산사태 등 교통장애가 이미 개선되었음을 웹사이트에 공고하려고 한다. 여행에서의 주의사항과 당부할 말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작성해 보시오. (250자 이상)

乙、測驗題部分：(25分)

代號：5107

(一)本試題為單一選擇題，請選出一個正確或最適當的答案，複選作答者，該題不予計分。

(二)共20題，每題1.25分，須用2B鉛筆在試卡上依題號清楚劃記，於本試題或申論試卷上作答者，不予計分。

- 1 날씨가 몹시 더워졌기 때문에 이런 날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나는 () 돌아다니고 싶어요.
(A)어떻게나 (B)얼마나 (C)어찌나 (D)어쩐지
- 2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울까 했지만 한국에 못 ()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요.
(A)간 김에 (B)가는 김에 (C)갈 바에야 (D)갈 뿐더러
- 3 젊을 때 돈을 버는 () 다 써 버리면 늙은 다음에 후회한다.
(A)속속 (B)죽죽 (C)달달 (D)탈탈
- 4 다음 4 문장 중 문법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비문을 고르십시오.
(A)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다. (B)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C)제일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다. (D)날이 새게 열심히 공부했다.
- 5 다음 4 문장 중 문법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비문을 고르십시오.
(A)그 사람은 아직도 학생이구려. (B)참 답답도 하시구만.
(C)그 사람이 그 꼴을 보고 뭐라고 하데? (D)우리가 이 유산을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 6 다음 4 문장 중 가장 정확한 것을 고르십시오.
(A)너 어디 아플지?
(B)시골에 살아 있다.
(C)그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되었습니다.
(D)그는 나의 친구이었는데 바 나는 그의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
- 7 다음 4 문장 중 가장 정확한 것을 고르십시오.
(A)날씨가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라. (B)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라.
(C)날씨가 덥기에 창문을 열어라. (D)날씨가 덥느라고 창문을 열어라.
- 8 다음 4 문장 중 가장 정확한 것을 고르십시오.
(A)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건 당연합니다.
(B)아침도 라면 먹었더니 또 라면이야?
(C)그 노인은 날마다 공원에 산책하러 가다시피 합니다.
(D)그 친구야말로 먹보지요. 하루 세끼에다가 오전, 오후 간식, 그리고 밤찬마저 모두 여섯 끼를 먹어요.

(請接第三頁)

104年公務人員特種考試外交領事人員及外交行政人員、民航人員、原住民族及稅務人員考試試題

代號：10750

全四頁
第三頁

考試別：外交人員特考

等別：三等考試

類科組：外交領事人員韓文組

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第9~10題)

9 규약이나 법령의 문장은 아무쪼록 쉽고 분명해야 한다.

- (A)반드시
- (B)아무든
- (C)가능한 대로
- (D)제대로

10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는 삭막하고 이기적인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거울로 삼을 만한 분이다.

- (A)표준
- (B)본보기
- (C)사례
- (D)반성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第11題)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도 외교·안보상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으로 ‘아시안 패러독스’ 현상은 더 심해졌다. ‘아시안 패러독스’의 개념은 한, 중, 일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높을 때도 경제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실 이 용어는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전제와 아시아 현실에 대한 착시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굳이 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역설이라고 이름 붙일 근거는 약하다.

11 아래 4 문장 중 밑글의 내용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A)‘아시안 패러독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협력의 수준에 비해 정치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일컫는다.
- (B)‘아시안 패러독스’는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정치 통합에 대한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C)한반도에 영향력이 큰 중·일 간 ‘그레이트 게임’의 격돌장이란 점에서 한국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D)경제통합이 먼저 진행되고 정치통합이 시차를 두고 뒤따르는 것은 지역통합의 필연적인 추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第12~13題)

최근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후진적 안전사고가 너무 많다. 부주의 탓에 발생하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및 질식 사고가 요즘 들어 빈번하다. 올 들어 일어났던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배기덕트 내부 공사 중 질소가스 질식 사고(4월),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질소가스 질식 사고(1월) 때에도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런 대기업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느슨해진 것도 한 이유” 라고 진단한다.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최저가 입찰’ 을 한다. 그렇다 보니 외주업체들은 숙련된 인력을 쓸 수 없고, 작업 이해도가 떨어지는 저임 근로자나 심지어 일용직으로 채우게 됐다. 자연히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대로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생협력단’ 을 꾸려 산재 위험에 대비하라고는 했으나 이 역시 ‘안전 교육’ 형태의 ㉡어설픈 대책에 그치고 있다. 적정가 낙찰제 확립, 위험 작업에 대한 숙련 인력 및 전문기업 양성, 기업 내 안전관리자 확보 등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 없이는 산업 현장의 인재(人災)형 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1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A)늘어진 것
- (B)작아진 것
- (C)철저하지 않은 것
- (D)긴요해진 것

13 밑줄 친 ㉡부분과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 (A)하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고 엉성하고 거친 데가 있는 대책
- (B)익숙하고 안전한 훈련 계획을 잘 세우는 대책.
- (C)철저한 준비나 신중한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하는 대책
- (D)조직이나 지식, 행동 따위가 완전하게 짜이지 못하는 대책

(請接第四頁)

考試別：外交人員特考
等別：三等考試
類科組：外交領事人員韓文組
科目：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第 14~17 題)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방한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사드) 체계의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한 한중, 한미의 논의가 공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류 차관보는 어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려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 차관보는 AIIB 에 대해서는 3 월 말까지의 창설 멤버 가입 기한을 언급하며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창설 멤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AIIB 가입 촉구·사드 반대’ 입장 표명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를 놓고 고민 중인 한국에 결단을 촉구하는 일종의 압박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이 차관보의 오늘 면담에서도 사드, AIIB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사드와 AIIB 에 대해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따져 보면 해법은 분명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 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국익에 따라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최상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AIIB 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독주가 우려되는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며 동맹국의 참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영국이 참여를 결정하고 호주도 불참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창설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면 출자금 지분과 의결권에서 불리해져 ‘마이너 멤버’가 될 우려가 있다. 우리로서는 AIIB 를 통해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통일준비’ 그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가 거론되는 것이다.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AIIB 가입 여부는 한국의 역할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결과적으로 한중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능력이 있는지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14 밑줄 친 ㉠부분과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 (A)고려해 보면 (B)추궁해 보면 (C)염두에 두면 (D)무시하면

15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 (A)방어적으로 (B)공격적으로 (C)수세적으로 (D)적극적으로

16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 (A)중국은 한 미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중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 (B)한국은 AIIB 창설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면 향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통일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
- (C)나라 이익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최상이다.
- (D)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수단으로 미국이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7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A)중국,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 표명 (B)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정책
- (C)국익 차원에서 AIIB 결단해야 사드도 풀린다. (D)한국 AIIB 참여 긍정적으로 검토

1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과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백령도 바다에는 기암괴석과 용치들이 즐비하게 늘려있다.

- (A)포유 동물의 이빨 화석 (B)우뚝 솟은 나무 (C)군사용 방어시설 (D)수영보조도구

19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바빠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요즘 _____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 (A)회의 준비하느라고 (B)시험공부하느라고 (C)심심해서 (D)한가해서

20 다음 대화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 왜, 다쳤어요?

나: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졌어요.

- (A)-기 위해서 (B)-기 때문에 (C)-는 대로 (D)-는 대신에

測驗式試題標準答案

考試名稱：104年公務人員特種考試外交領事人員及外交行政人員、民航人員、原住民族及稅務人員考試

類科名稱：外交領事人員韓文組

科目名稱：外國文(含新聞書信撰寫與編譯)(韓文) (試題代號：5107)

單選題數：20題

單選每題配分：1.25分

複選題數：

複選每題配分：

標準答案：

題號	第1題	第2題	第3題	第4題	第5題	第6題	第7題	第8題	第9題	第10題
答案	D	C	B	D	C	D	A	C	C	B

題號	第11題	第12題	第13題	第14題	第15題	第16題	第17題	第18題	第19題	第20題
答案	A	C	B	D	A	C	C	C	A	B

題號	第21題	第22題	第23題	第24題	第25題	第26題	第27題	第28題	第29題	第30題
答案										

題號	第31題	第32題	第33題	第34題	第35題	第36題	第37題	第38題	第39題	第40題
答案										

題號	第41題	第42題	第43題	第44題	第45題	第46題	第47題	第48題	第49題	第50題
答案										

題號	第51題	第52題	第53題	第54題	第55題	第56題	第57題	第58題	第59題	第60題
答案										

題號	第61題	第62題	第63題	第64題	第65題	第66題	第67題	第68題	第69題	第70題
答案										

題號	第71題	第72題	第73題	第74題	第75題	第76題	第77題	第78題	第79題	第80題
答案										

題號	第81題	第82題	第83題	第84題	第85題	第86題	第87題	第88題	第89題	第90題
答案										

題號	第91題	第92題	第93題	第94題	第95題	第96題	第97題	第98題	第99題	第100題
答案										

備註：